무더위 식혀주는 안개분수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22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안개분수가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34 해짐 19:43 달뜸 11:58 달짐 23:39

'중복' 더위 식혀줄 장맛비

장마전선 영향으로 오전부터 돌풍을 동반한 다소 강한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 30~80㎜.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리고 비	24/28	보 성	흐리고 비	22/26
목 포	흐리고 비	23/27	순 천	흐리고 비	24/27
여 수	흐리고 비	23/25	영 광	흐리고 비	24/28
나 주	흐리고 비	24/29	진 도	흐리고 비	23/27
완 도	흐리고 비	23/26	전 주	흐리고 비	24/28
구 례	흐리고 비	23/27	군 산	흐리고 비	23/27
강 진	흐리고 비	23/27	남 원	흐리고 비	23/27
해 남	흐리고 비	23/27	흑산도	흐리고 비	22/24
장 성	흐리고 비	23/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먼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먼바다(동)	남동~남	1.5~2.5	남동~남	1.5~2.5
	먼바다(서)	남동~남	1.5~2.5	남동~남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20
빨래	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24	11:44
	18:51	23:55
여수	00:54	07:01
	13:21	19:23

◇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24/28	24/31	24/32	24/28	24/30	24/32	25/32

감시장비·단속인원 늘려 '몰래버린 양심' 근절

광주 서구 '쓰레기 불법투기와 전쟁' 백태

U대회 앞두고 단속용 블랙박스·CCTV 등 추가 설치

작년 단속 건수 275건…5개 구청중 1위 '깨끗한 도심'

지난해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구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U대회를 앞두고 단속 장비와 순찰을 강화한 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가 지난해 적발한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는 총 66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6951만원으로 집계됐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69건(과태료 568만원), 서구 275건(〃3351만원), 남구 43건(〃700만원), 북구 221건(〃1985만원), 광산구 52건(〃347만원)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는 동구 23대, 서구 60대, 남구 64대, 북구 72대, 광산구 38대이며, 특이한 것은 서구만이 단속용 블랙박스(29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지난 2013년 청소기동반 차량 5대에만 설치했던 단속용 블랙박스를 2014년 들어 청소행정과 직원, 가로 미화원 등 24명의 차량에 추가설치하고 단속을 벌여왔다.

서구지역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데는 광주U대회를 앞두고 서구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무·금호지구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구는 광주U대회를 앞둔 지난해 20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 2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감시장비를 늘렸다. 20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무단투기 기동 특별단속반도 편성, 근무시간은 물론 자정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지난 2013년보다 33.6%(208→278건)가 늘었다.

서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집중된 곳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한 결과 적발 건수가 대폭 늘었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CCTV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고교생 10명 중 6명 "수학 포기"

초중고생·수학교사 설문

70% 이상 "사교육 경험"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수학 공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은 수학 사교육을 한 적이 있고, 사교육 때 선행교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생 7719명과 수학교사 1302명 등 총 90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일명 수학을 포기(수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 27.2%, 중 50.5%, 고 73.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20% 이상씩 크게 늘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생은 초 11.9%, 중 33.1%, 고 5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학 수업에 학생이 얼마나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느냐'는 교사 대상의 질문에 '5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 19.1%, 중 30.2%, 고 63.6%에 달했다. 특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비율이 2배 이상이었다.

수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초등학교가 84.6%인데 반해, 중 52.9%, 고 34.5%로 크게 줄었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진도에 앞서서 선행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초 70.4%, 중 77.8%, 고 72.1%에 달했다. 선행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배운 내용의 절반 또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초 27.2%, 중 45.1%, 고 5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운남 초등생 제기 6개 자치 민원 광산구청 적극적 수용 의사 밝혀

민형배 구청장, 학생들과 대화 "대책 마련" 약속

광주운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해 제기한 숙원사업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가 최근 초등학생들의 사연을 듣고 학교를 직접 방문,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해당 민원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7월 17일자 6면〉

2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은 지난 20일 광주 운남초교를 방문,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이 제기한 다양한 민원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지난 14일 각 학급별로 주민·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거쳐 '운남주공 4·5단지 놀이터 개보수', '삼성아파트 및 운남주공 4·5단지 놀이터 모래바닥 교체' 등 실현 가능한 숙원사업 6개를 선정한 뒤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광산구에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민 청장은 이날 대화의 시간에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와 민원 해결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청장의 이번 학교 방문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린 학생들의 민원에 대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평소 강조해 온 '눈높이 맞춤행정'에 반한다는 지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공부한 뒤 토론을 거쳐 정한 민원인 만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지역과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배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